

정결하게 하는 물

말씀: 민 19:11-22

요절: 민 19:19

오늘 공부할 본문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불로 태운 후 그 재를 정결하게 곳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별하는 물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암송아지의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부정하게 된 자에게 뿌리는데 그 물을 성경은 “**분리의 물**”이라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9)는 구절에서 나온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은 이 시대에 적용하면 ‘말씀의 물’을 의미합니다.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적용하면 회개의 침례를 뜻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이스라엘에 민족적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KJV).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우리 주와 사도들 역시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22절, “**이 일들 뒤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시더라.**”(요3:22).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때 요한과 예수님이 모두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고, 백성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아닌 예수님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요3:23-25).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주었습니다(요4:1). 침례인 요한은 백성들에게 죄들의 사면을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막1:14).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마26:28). 대언자들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행10:43). 요한이 선포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후에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행2:38).

다윗은 주께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시 19:12)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일로 큰 죄를 지었을 때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시51:2)라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불법에서 철저히 씻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율법 아래서는 죄의 용서는 있지만 죄를 깨끗이 제거하는 일은 없습니다. *출34:7, 민14:18. 다윗은 자신의 죄가 희생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약 희생물로 해결된다면 벌써 희생을 드렸을 것입니다. 시편 51: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시51:7). 구약 성도들은 주께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해 줄 것을 구했는데 이 일은 주 예수님의 희생, 죽으심, 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죽임으로써 죄를 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죄가 깨끗하게

되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정결한 물을 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6:25절, “그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겔 36:25). 주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자기들의 어떤 범법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 곧 그들이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겔37:23). 이것은 대환란을 통과한 후입니다. 그 날에 정결하게 샘이 열립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슌13:1). 이들은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회개의 침례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민족적 회심과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예표하는 진리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11).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사체 뿐 아니라 짐승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도 부정합니다. 사체를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체를 옮기는 자도 부정하고, 사체 중의 일부가 어느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도 부정하다(레11:35)고 말합니다. 사체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체를 만지는 일은 가족들, 친지들, 또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레21:1). 죽은 몸을 무덤에 묻으려면 누군가는 사체를 만져야 합니다. 시체를 아마포로 싸고 엷(斂)을 하는 사람들 역시 사체를 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이레 동안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는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려니와 그가 셋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일곱째 날에 정결하지 아니하리라.”(12). 사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셋째 날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날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님은 셋째 날에 일어나 자기를 죽인 유대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태운 이들은 자기들이 죽이고 태운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 자기들의 죄가 정결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려니와...”(12). 셋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했는데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표적으로 볼 때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신 날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칠칠절이라 불리는데 일곱 번의 안식일이 지난 날입니다. 유대 땅에 죄사함을 위한 *침례가 선포된 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죽은지 셋째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순절에 주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되는 때가 바로 이 날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부정함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게 되고, 셋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셋째 날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일어난 부활과 연관되어 있고, 일곱째 날은 그분의 피, 희생을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오순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리라.”는 것은 부정함, 더러움을 씻음 받는다는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크리스천들의 정결례는 구약과 달리 매우 간단합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9).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마음과 양심을 씻는 물이 됩니다(요15:3).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니라.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니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부정할 것이요, 그의 부정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느니라.”(13).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셋째 날에 붉은 암송아의 재로 만든 물로 자기를 씻지 않으면 그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 주의 성막을 더럽힌다**는 진리에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란 말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체로 부정하게 된 자는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신을 씻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모든 사람이 회중이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 한 가운데 거하고 계셨기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회중 안으로 들어와 거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의 성막 둘레에 장막을 친 백성들은 자기 몸을 부정하게 하면 주의 성막을 더럽힌 것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의 몸이 주의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주께서는 그를 멸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고전3:17). 구약의 진리는 신약의 진리들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니 ...”(13)란 말씀은 주께서 그를 멸하시고 죽이신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롬8:13).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부정할 것이요, 그의 부정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느니라.”(13).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그가 사체로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거룩히 구분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고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죽고 멸망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 그는 정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생각과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히 구별됩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날, 그 시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를 믿은 그 날 그 시각 나의 혼이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물로 내 몸을 씻는 것보다 더 깨끗이 나의 부정함, 더러움, 불결을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다시 죄를 짓고 더럽혀질 때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숨기거나 변명을 하면서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부정함, 죄는 여전히 그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14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그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자와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14).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직접 만지는 사람 외에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그리고 그 장막에 있는 모든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부정한 것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그 처소에 있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으로 죄의 전염성, 오염, 확장성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몸으로 직접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일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사람들이나 죽이라고 외친 사람이나 멀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동조한 무리나 다 같은 죄입니다. 일반 형법에는 적극적 가담자와 동조자를 구분하지만 사체에 관해서 주님은 모두 다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몸으로 행한 죄나 마음의 생각으로 행한 죄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마5:28)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사람이 몸으로 간음을 행한 자와 동급으로 취급 받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성경은 둘 다 간음을 했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3: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요일3:15).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사람과 동급의 범죄자로 여겨지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주 앞에서는 동일한 죄입니다. 사람을 직접 만진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자가 모두 이레 동안 부정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릇에 붙잡아 맨 뚜껑이 없어 열어 놓은 모든 그릇도 부정하니라.”(15). 그릇에 붙잡아 맨 뚜껑이 없다는 말은 그릇의 덮개를 끈으로 묶어 놓아 밀봉한 것을 말합니다. 그릇의 입구를 동여매어 완전히 밀봉하지 않는 그릇이나 열어 놓은 모든 그릇도 부정하다는 것인데 이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미 공기 전염을 통해서 모두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헌물의 고기를 질그릇에 삶았을 때 그릇이 더러워졌기에 깨뜨리라는 것과 같습니다(레6:28). 하나님은 사체가 누구를 부정하게 하고, 어디까지 부정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체는 죄의 샅인 사망이 임한 몸입니다. 사체는 우리 몸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란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체와 사체를 만지는 자, 그 장막 안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뚜껑을 열어 놓은 그릇까지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 줍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몸을 아끼고 양육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주께 가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빈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라”(16). 장막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야외에서 죽은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빈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를 만지면 당연히 부정한 것이고, 무덤을 만지는 자도 이레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는 무덤 앞에서 절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덤을 만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덤을 만지는 자도 사체를 만지는 것처럼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지(不知) 중에 무덤을 만지지 않기 위해 무덤에 흰색으로 회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무덤을 만지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마23:27)하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돌무덤에 회칠한 이유는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괜히 무덤을 만졌다가 이레 동안 부정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 들판에서 죽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체를 보면 땅에 묻어 주어야 땅이 더럽게 되지 않습니다. 사체를 처리하는 일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는 부정하게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나를 더럽혀야 하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일을 했고, 심지어 옳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나를 더럽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율법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면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다윗은 굶은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 오직 제사장들 외에 먹으면 안 되는 빵을 줄 것을 요구했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삼상21:5,6). 공훈은 심판을

이겁니다. 누군가의 사체를 싸매고 무덤에 묻어 주는 일은 선한 일이요 옳은 일입니다. 만약 내가 부정하게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도 사체를 만지려 하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누가 사체를 치웁니까? 우리는 마땅히 공홀과 연민, 동정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 슬픔에 처한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부정하게 된다고 해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죄인들이 악한 현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썩을 세상에 살면서 오염과 부정을 피해 늘 의롭고 거룩하게만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 줍니다.

17절입니다.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재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17). 부정한 자들은 그냥 평생 부정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자들은 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본문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의 재”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더러움을 씻기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히9:13). 이것이 구약의 정결법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 현물, 범법현물을 말합니다. 암송아지의 재는 본문에서 말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히9:14).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짐승의 피나 재보다 훨씬 더 많이 깨끗하게 합니다. 주의 피는 모든 죄와 허물,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1:7). 요한계시록 1:5절,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계1:5).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구약 성도들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취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이 물은 거룩하게 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이 물은 부정하게 된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해 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양심, 생각,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해 주는 물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18절입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리고 또 떠나 죽임 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18).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암송아지의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합니다. 그는 우슬초를 젓물에 담구고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물을 뿌립니다. ‘거기’란 사체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떠나 죽임 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립니다. 이 물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이 물은 부정한 자들의 몸에 뿌려져 그 몸을 깨끗하게 했지만 신약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뿌려져 마음의 양심과 생각을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히 10:22). 신약에서는 몸이 아닌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피”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히12:24). 암송아지의 재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불태워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의 고통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혼이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사람에게 암송아지의 재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뿌리게 하시지 않고, 흐르는 물을 받아 섞어서 뿌리게 하셨는데 이는 성령의 권능, 기름 부으심을 예표합니다. 주의 피는 우리에게 그냥 뿌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뿌려집니다. 흐르는 물은 생수의 샘이요, 생수의 강인 성령을 예표

합니다. 주의 피, 그분의 죽으심은 성령을 통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마음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씻김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고전6:11). 그릇에 담긴 재에 물을 받으면 그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뿌려져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벧전1:2).

19절입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들에게 뿌리고 일곱째 날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저녁때에 정결하게 되리라.”(19). 부정한 자들에게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리는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립니다. 잿물을 뿌린 사람은 일곱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부정한 자에게 정결례를 집행한 사람도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으로 나아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우리 자신의 생각, 상상, 마음, 양심도 더럽혀집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다툼, 분노,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까? 한심한 소리를 인내하면서 듣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면서 나의 혼은 상하게 됩니다. 다행히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도 있으면 기쁨이 있고, 힘이 나지만 그런 중에도 많은 더러움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의 일을 해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체험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상한 형제들, 지체들과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건전한 교리로 깨우침을 주려 할 때 나의 마음이 상하고 더럽혀지는 일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물로 목욕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도 그러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친 목사가 홀로 주 앞으로 나가 자기를 정결케 해야 할 일도 허다합니다. 크리스천이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면서 죄와 더러움과 전혀 무관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교제를 한다면서 말과 행위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주께 찬양을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간증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잿물을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될 그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에게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였은즉 그는 부정하니라.”(20). 부정하게 될 사람이라면 사체를 만지거나 장례식을 참석해야 할 사람, 그리고 부지(不知) 중에 무덤을 만지거나 우슬초에 잿물을 묻혀서 부정한 자에게 뿌리게 될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들이 이 일을 함으로 부정하게 될 것을 알기에 ‘부정하게 될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거룩한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주의 성소를 더럽힌 것입니다. 부정한 성도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 그 혼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집니다. 구약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은 육체적 죽음의 징별이나 회중에서 출회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였은즉 그는 부정하니라.”(20). 암송아의 재를 흐르는 물에 담은 물을 “거룩히 구분하는 물”(the water of separation)이라고 합니다. *분리의 물(KJV). 부정하게 될 사람들에게 이 물을 뿌리지 않으면 그는 부정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

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고후6:17). 거룩의 핵심은 분리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분리의 물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분리됩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리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리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 줍니다. 건전한 교리는 우리를 분리해줍니다. 교리가 사람들을 분리해 준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 분리, 오류로부터의 분리, 육신으로부터의 분리를 싫어하는 분들은 ‘분리의 물’을 뿌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 옷을 빨지니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21). 부정한 자에게 ‘거룩히 구분하는 물-분리의 물’을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속하는 법규가 됩니다.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거룩히 구별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인들과 접촉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인들의 더러움, 부정함과 접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혼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시니라.”(22).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는 혼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이 말은 죄와 더러움의 오염, 전염성을 보여 줍니다.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이 무엇이나 부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들이 만진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급성 바이러스가 번지는 것보다 더 빨리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격리해야 하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분리의 물(거룩하게 하는 물)을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면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럽혀질 때마다 주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의 피, 주의 말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